



통권 55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6. 5. 9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지난 4월 20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 8차 정기총회가 동송동 홍사단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총회에서는 8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채택하고 새 일꾼을 뽑아,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결의했습니다.

양심수후원회 제8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지난 4월 20일(토) 오후 3시부터 홍사단 강당에서 후원회원과 축하손님 등 170여명이 함께 모여 제8차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총회 1부는 이덕우 운영위원의 사회로 여는 말씀, 민중의례, 박용길 지도위원의 모시는 말씀 그리고 권오현 회장의 내빈소개, 총회위원장이신 김승훈 신부님이 총준위 경과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어 7차년도 사업보고(회장), 감사보고(윤성식 감사)를 다른 의견없이 받아들였고 다음으로 그동안 열심히 활동한 8명의 고마운 회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특히 이날 감사패를 수상한 성경화 회원은 병원 입원중에도 목발을 의지해 총회에 참석해 많은 회원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또 지도위원 추대가 있었고, 8차년도를 힘차게 이끌고 나갈 새일꾼으로 회장단과 운영위원은 총회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감사는 총회에서 작년에 이어 진관 스님과 윤성식 님이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새일꾼 인사에 이어, 이균영 운영위원이 제안설명한 8차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큰 박수로 채택하였으며 천영세(전국연합 공동의장), 배종일(전교조 부의장) 님께서 격려말씀을 해주셨고, 총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달려오신 가수 안혜경 회원께서 축하를 불러주셨습니다. 탁무권 운영위원의 힘찬 당독으로 총회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1부 순서를 마쳤습니다.

2부 뒷풀이 시간은 '여든여덟' 회원(한양대, 한양여전 탈패모임)들이 신명나게 풍물놀이로 길을 열어 주었고, 김대영 회원의 진행으로 아주 흥겨운 놀이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희망' 회원들이 '내가 만일'이라는 직접 지은 노래를 아주 예쁘게 불러 큰 박수를 받았고, 양계숙 회원이 감옥에서 날아온 총회 축하편지를 낭독해 함께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조출한 음식을 나누며 올해 우리 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감사패를 받으신 분들

- 강혜옥 님
양심수후원회가 만들어진 이래 한결같이 정성어린 성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 김성희 님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수와 자매결연을 맺어 분단의 담조차도 허물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 김호현 님
오래간혀 있다 출소한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후원하고 특히 회원간의 화합을 위해 힘써 주셨습니다.
- 성경화 님
양심수들을 위해 후원회가 만들어진 이래 끊임없이 정성어린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 이희두 님
양심수후원회와 민가협이 어렵고 힘든 일을 헌신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 조계숙 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마다 십일조와 큰 성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 황영태 님
80노구를 이끌고 청년같은 열정으로 양심수후원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 음시롱 감시롱
오랜세월 간혀있다 풀려난 선생님들을 위해 여러 회원이 오랜 기간동안 열성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8차 총회에서 새로 뽑힌 일꾼들

지도위원(추대)

- 김승훈(여의도 성당 주임 신부)
- 박용길(통일맞이 칠천만 거래모임 이사장)
- 홍근수(향린교회 담임목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동대표, 한 거래 논설위원)
- 조만조(전 민가협 공동의장)

회장단

- 권오현(회장, 다시 뿔핍, 민가협 공동의장)
- 이덕우(부회장, 다시 뿔핍, 변호사)
- 윤정모(부회장, 새로 뿔핍, 소설가, 전 양심수후원회 부회장 지냄)

운영위원

- 소수영(다시 뿔핍, 전 양심수후원회 부회장 지냄)
- 김지영(다시 뿔핍, 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이정규(다시 뿔핍, 주부)
- 이균영(다시 뿔핍, 소설가, 동덕여대 국사학과 교수)
- 정인숙(다시 뿔핍, 전 천주교 노동사목 전국협의회 회장)
- 탁무권(다시 뿔핍, 출판업, 남민전 사건으로 옥고 치름)

감사

- 진관(다시 뿔핍,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윤성식(다시 뿔핍, 전 사월혁명연구소 소장)

사무국 간사

- 송소연, 송록희

오랫동안 양심수 후원회 지도위원으로 지도해 주셨던 박현서 교수님, 지난 1년 운영위원으로 애써 주신 홍일선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찌 생사람을 35년이나 가두요



▲ 양희철 님, 고려대학교 졸업식 날에 왼쪽이 형님 양순길 님, 양희철 님, 누님 양순영 님

누나, 그 이름만으로 가슴이 녹녹해지는 따스한 사람. 언제 불러도 정답게 다가올 것 같은 사람. 양희철 님(64세, 35년째 복역)의 누이 양순영 님(71세)을 뵈러 갔다.

양순영 님은 동생과 조금의 연분이 있는 사람만 봐도 동생을 본 듯 반가운지 눈가에 눈물을 고이며 한동안 잡은 손을 놓지 못하셨다.

우찌 생사람을 35년이나 가두요

“나가 가만 생각하면 속이 보글보글 끓어 싸요. 가가 보낸 편지를 보고 앉았으면 너무 보고 잡고 속이 상해 눈물이 복받치고 허서 혼자 대성통곡을 하기도 여러번 입니다. 아 이고 징그라 징그러. 우찌 생사람을 35년간이나 가두요.”

양순영 님은 35년간이나 가슴속에 삭이던 울분을 첫마디에 쏟으셨다.

양희철 님은 1934년 전라북도 장수군 개남면 가곡리에서 나셨다.

6남매중 다섯째인 양희철 님의 유년기는

거의 10살 차이가 나는 큰 누이 양순영 님과 가장 가깝다. 양희철 선생님을 ‘순전히 업어서 키운’ 큰 누이이기에.

어려서부터 성격이 팔팔하던 양희철 님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장수에서 마친 후 서울로 올라와 고려대학교 경제학부에 입학하였다. 이미 서울에 와 있던 큰형 댁에 머물며 양희철 님은 형님의 영향을 음으로 양으로 많이 받으셨으리라.

양희철 님의 큰형인 양순길 님(81세)은 넉넉치 못한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를 졸업한다. 유독 총기가 어린 양순길 님을 알아본 교장 선생님이 몸소 앞장서 장학금을 지급하며 ‘청출어람’ 할 제자를 키운 것이다. 양순길 님은 중학을 졸업한 후 고창고보를 마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대학에 입학한다.

앞에서 오는 희열과 청년의 패기로 고학을 한 양순길 님은 동생들의 교육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셨다 한다. 서울서 생활을 하면서 가끔 고향집에 들를 때면 동생들을 불러

놓고 '배워야 한다. 중학교 까지 마치고 서
을 올라오면 내가 어떡하든 책임지고 가르칠
테니 걱정말고 공부해라'며 동생들이 혹 가
난으로 배움의 끈을 놓을까 걱정하셨다 한
다.

“학교 문턱에도 못간 나가 지금 우리 희철
이 편지라도 읽고 띄엄띄엄 편지를 써 보낼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큰 오빠 덕인것이지
라. 한 번 내려 올때마다 '순영아, 배워야
한다. 못 배우면 머슴각시밖에 안된다. 안된
다.' 했는디 그때는 머슴각시가 뭔지나 알았
간디? 그저 오빠가 글 써주고 가면 그 놈을
제대로 읽고 까꾸로 읽고 하며 스스로 배웠
제”

일흔이 넘은 할머니에게서 나오는 '우리
큰 오빠', '우리 동생 희철이' 란 말이 몇십
년을 갈라져 산 간격을 간단히 메워 푸근한
형제애를 느끼게 했다.

“우리 큰 오빠, 사람이 그렇게 암전해서
말대꾸 한번 한 적 없이 부모님이 뭐라고 하
면 '예, 예' 만 하던 사람이지. 아버님도 큰
오빠를 애지중지 키워 어려서는 아침마다 얼
마나 컸나 뺨을 재 보며 키웠답디다. 또 생
기기도 그렇게 잘 생겼고.”

그러나 집안의 기둥이었던 양순길 님은
6. 25가 터지자 인민군을 따라 월북한다.

양희철 님은 고려대를 졸업한 후 여러
직업에 종사하며 형수님과 조카를 돌보았
다. 그러던 60년 4. 19. 양희철 님은 잠깐
남으로 내려 왔던 형을 따라 북에 갔다가
61년 남쪽으로 다시 내려온다. 그리고 다
음해 양희철 님은 체포되어 장마보다 지리
한 수감생활을 시작한다, 고작 스물 여덟
의 나이였다.

거그나 여그나 다 같은 한 나란데

양희철 님이 체포된 후 제일 먼저 남편과
교도소로 쫓아 갔던 양순영 님은 동생의 형
량이 '무기' 라는 말을 듣고 '하도 분이 복받
쳐', '그럴꺼면 차라리 죽여 없애라' 고 악을
쓰며 목놓아 우셨다 한다.

“내 동생이 사람을 죽이기를 했소. 도둑질
을 했소. 아니면 남 보는데서 누구 뺨을 한
대라도 치길 했소. 거그나 여그나 다 같은
한 나란데 거그 좀 갔다 왔다는게 뭘 큰 죄
라고 사람을 그렇게 오래 가두요. 아이고,
징혀라.”

양희철 님의 구속소식을 듣고 화병으로
돌아 가신 부모님을 보며 처음엔 '나가 하
늘서 떨어졌냐, 땅에서 솟았냐. 왜 부모 속을
썩이냐' 고 철창을 붙들고 울부짖던 양순영
님의 모습도 이제 전향을 거부하는 양희철
님의 꺾끗한 자세만큼 의연해 지셨다.

‘누님! 서쪽으로 기울 듯 매달려 있는 낮달이
있 떨어지고 앙상한 미류나무 잔가지 위에 얹혀서
운동하고 있는 수인들을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험려 반쪽이 채 안된 하얀 낮달. 구
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혼자라서 더욱 쓸쓸
하고 외로워 보이는 낮달. 스무사흘 조금, 맑고
하얀 낮달. 기울고 기울다 형태의 그림자마저 없
어질 그믐을 향해 내일도 모래도 달릴 낮달. 눈
썹같은 초생달로 다시 커나서 여드레 조금, 반달
을 초저녁 하늘에 밝게 비출 저 낮달. 그렇지, 쟁
반 같이 둥근 달로 키워기 위해 가쁘게 돌고 돌
저 낮달을 지금 외로움으로 느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겠습니다. 누님! 제가 본 저 낮달을
누님께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면 기운다는 이
치를 일깨워주는 저 달. 기울어 더욱 작아지다가
없어질 하현의 낮달이라서가 아니라 맑고 깨끗함

니다. 차가움을 내뿜는 듯 도도하고 분명하기까지 합니다. 분명 어두운 그름으로 내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다시 기울었다 일어나 보름달로 될 수 있다는 오만함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95년 11월 16일자 편지)

부모님께선 저에게 있어서만은 살아 계십니다

“가는 세상 무서운 사람이 있간디. 지금도 ‘내가 왜 간첩이냐고, 후손들 위해서 통일 이루자는 것인데 그게 왜 간첩이냐’고 소리 소리 질러 썼고 그래요. 가는 지금도 아주 야물딱지고 딱딱하게 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딱딱하게’ 젊은 ‘우리 동생 회철’ 이도 벌써 환갑을 넘긴 노인이 되었다.

양희철 님의 환갑날 일이다. 양순영 님은 둘째오빠, 올케언니, 여동생 그리고 조카들과 함께 음식을 장만해 양희철 님이 간혀 있는 교도소로 찾아 갔다. 감옥안에서라도 소박하게나마 동생의 환갑상을 차려 주기 위해서였다. 간혀 산 날이 더 많은 동생이 환갑마져 감옥에서 맞아야 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억장 무너지는 일이었을까. 하지만 양희철 님은 ‘내가 무슨 환갑이냐’며 펄쩍 뛰더라. 이제 서른 몇 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환갑이냐고.

“누님! 부모님께선 저에게 있어서만은 살아 계십니다. 제가 떠나 보내드리지 않았으니 부모님이라고 훌훌 떨치고 가실 수 있으실라고요. 그래서 일까요. 늘 제 곁에 계시는 듯 힘이 돼 주시고 있습니다. 꿈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뵈게 되면 그 날은 기분이 좋아요. 기쁜 일이 생기고 누님으로부터 때론 친지들로부터 편지를 받거나 소포로 책을 받게 될 때가 많드라고요. 누님! 이번 면회 땀 누님께서 저에게 나무랄 주시지 않으셨

어요. 부모님 제일(祭日)도 모르는 불효자라고요. 누님! 아마도 이곳에 있는 한 영원히 부모님의 망일을 기억 못할 겁니다. 저는 그 망일을 거부하고 있을 테니깐요.” (95년 8월 3일자 편지)

양희철 님이 굳이 환갑이 아니라고 우기는 이유일 것이다. 부모님을 보내지 않은 것처럼 간혀 보낸 당신의 청춘도 결코 헛되이 흘러 보냈다고 생각 않으려는 고집.

“가는 지가 들어간 나이만 생각하고…… 남들은 뒷글 배워 말글로 풀어 먹는다지만, 우리 동생은 말글 배워…… 허긴, 그 안엔 대학생들도 많다고 하대요. 가가 그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는 하든디…… 그 날도 지는 얘기하느라 암것도 못먹고 다른 사람 주라고만 허고…….”



▲ 동생과 조금이라도 연분이 있는 사람만 보면 동생을 본 듯 반가운 지 눈가에 눈물 고이는 양순영 님.

다시 눈물을 닦으신다. 동생 위해 싸간 음식이 남 입에 들어 가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매일 거친 음식만 먹었을텐데도 사람에게 굶주려 음식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얘기하느라 분주한 예순의 동생의 모습이 다시 애잔하게 눈에 밝히나 보다.

“그래도 이자는 가도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간혹 편지를 보면 요즘은 지겹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라도 나오기만 하면 누나 있겠다 성님 있겠다, 우찌 못 살 것소. 지발 나오기만 하면…….”

‘누님을 생각할 때마다 누님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어린애기가 됩니다. 참던 손도 파스해지고 배고픈 것도 잊어 버리고 아늑해지면서 편안해 집니다. 처음 제가 대전 징역 살 때, 그때가 1965년이던가요. 겨울에 썩떡빛의 내의를 넣어 주셨는데 몇차례 이갑 다니는 바람에 어딘가로 없어졌어요. 얼마나 서운했는지...(중략) 그런데 누님! 제가 첫 월급타서 부모님께 돌보기 안경과 내의를 마련해 드린게 1956년이었는데 제가 잡혀 들어 온 후 어머님이 입으셨던(제가 사다트린) 내의를 저에게 영치시켜 주셨어요. 순 면내의로 처음은 약간 분홍빛이었는데 지금은 백색으로 되어 있어요. 40년 전 내의. 제가 받은지 35년이 넘은 어머님의 내의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해마다 입었던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보고 싶을 때 가끔씩 꺼내 보기도 했었는데 금년엔 입고 싶드라고요. 얼마나 파스하다고요. ...(중략) 어제

누님께서 주신 편지 받았습니다. 돈 30,000원과. 설 연휴가 끼어서 좀 늦게 받았어요. 요번 설은 좀 썰렁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징역쟁이들에게는 먹는 것 없는 연휴가 짧은 거예요. 보내 주신 돈으로 대보름에는 맛있는 것 사먹으렵니다. ‘감’을 판대요. 지난해 설때만해도 이렇게 공색이 안들었는데, ‘설’인데도 ‘떡’도 ‘고기’도 안랍니다. 아껴쓰고 아껴 먹으라는 거랍니다. ‘설’ 때는 좀 서운하긴 했어요, 어린애 같이.’ (96년 2월 24일자 편지)

목요집회에 나오시라는 조심스런 권유에 ‘어휴, 나가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 회철이가 나올 수만 있다면 아무리 멀어도 나가야지’ 하신다. 일흔이 넘으신 나이에 서울시 인천이 어딘데.

웅충한 대접도 당신맘엔 부족해서인지 ‘그냥 보내면 내 맘이 서운해서 안된다’며 마다하는 우리에게 굳이 쥐어 주신 꼬깃꼬깃한 만원짜리 지폐를 꼭 쥐어 본다. ‘너무 보고 잠을 때면 꿈에서 동생을 본다.’ 일흔 한 살, 누이의 정성이 이제 창살을 녹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순천가는 길

안소영 (회원, 29세)



“따 르르릉” “딩동딩동”

하나로는 못미더워 두 개씩이나 맞춰놓은 시계가 5시를 알리며 저마다 다른 소리로 시끄럽게 울어댄다. 오늘 하루를 비워놓느라 며칠간 무리를 했더니 마음과는 달리 몸은 계속 늘어지기만 한다. 이른 새벽부터 무언가를 먹을 마음이 생기지 않지만, 안그래도 먼길 떠나보내놓고 안스러워할 엄마가 더욱 걱정하실 것 같아 억지로 좀 먹는다. 현관문을 나서며 돌아보니 엄마는 여전히 착잡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신다.

버스와 지하철을 한참 갈아타고 나서 호남선 고속터미널에 도착해 시계를 보니 7시가 조금 못되었다. 매표창구 앞에서 내 주머니 속의 경제는 17,500원과 11,700원의 사이에서 잠시 갈등한다. 7시발 우등고속을 탈 것인가, 7시 30분발 일반고속을 탈 것인가. 결국 터미널에서 좀 더 사람구경하며 기다리기로 한다. 주머니 사정도 그렇지만, 감옥 안에 있는 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을 편안하게 가기가 웬지 내키지가 않는다. 아버지께서 10년간 감옥살이를 하시는 동안 어머니는 겨울난방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 언제나 우리집의 겨울은 조금씩 발이 시렸고 스산했다. 그래서인지 나는 지금도 난방이 잘된 방안에 들어서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다. 작년, 재작년의 우리집 겨울은 또 그렇게 추웠다.

드디어 7시 30분, 버스는 출발한다. 서울에서 순천까지는 버스로 약 5시간 30분, 국토의 남단을 완전히 '종단' 하는 거리이다. 버스를 타고 주옥 내려가다 보면 계절은 남쪽으로부터 오고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중부지방의 눈발은 아직 흩날갈 그대로인데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제법 파릇파릇한 색깔을 서서히 띄기도 하고,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좀더 많이 바라볼 수 있다. 순천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창밖을 바라보는 내 눈은 또 빛나기 시작한다. 조계산, 곡성, 화순, 승주... 소설 <태백산맥>을 통해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왔던 낯익은 지명들이 아닌가.

12시 45분 드디어 순천도착, 택시들이 외지인을 기다리며 터미널 앞에 늘어서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이곳의 지리를 어느 정도 안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 순천대학교가 있고 그앞에서 버스를 타면 교도소까지 약 15분 남짓 걸린다.

언제나 마찬가지로의 절차, 신분증을 보여주고 정문을 통과한후 민원실의 면회창구 앞에 선다. “1981년 안영민, 공안이에요” 양심수들을 면회하려면 창구에서 반드시 ‘공안’임을 밝혀야 한다. 이른바 ‘공안사범’의 카드는 따로 보관되어 있고, 접수창구에서 ‘보안과’에 통지를 해야만 그 관할 아래 면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소, 이름, 관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끝나고 나는 차례를 기다리며 대기실을 둘러본다. 언제나 나를 안스럽게 하는건 엄마따라 면회온 아이들이다. 저 아이들의 작은 머릿속에, 교도소로 아빠를 면회온 기억이 확실히 자리잡기 전에 얼른 그들의 아버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기결, 1981년 안영민 면회하신 가족” 면회실로 오라는 방송이 들린다. 접수실에서 부터 면회실로 가는 내걸음은 유난히도 빠르다. 문을 열고 들어섰더니 영민이는 나보다 먼저와 웃으며 나를 반긴다. 반가운 한편으로, 푸른웃을 입고 철창너머 앉아있는 모습이 꿈속처럼 어렴해보이고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한다. 안경진 얼굴은 여전히 눈에 익지 않다. 건강하던 시력도 감옥에 들어오면 누구나 나빠진다는데 침침한 불빛 아래 책을 읽느라 그렇

다는 것이다. 감옥 안의 환경이 마음에 걸려 기분이 좋지 않다. 게다가 면회실은 왜이리 어둡고 좁고 썰렁한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한다. 대전교도소에 계신 아버지와 가족들 안부로부터 친구들 소식, 읽은 책,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하지만 여기서 나는 또 아쉬움을 느낀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일때 우리는 그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한다. 나도 영민이가 있는 방은 어떤지, 창은 어디에 붙어 어떤 풍경이 보이는지, 운동장은 어떤지 알고 싶다. 가족들보다 더 자주 만나는 함께 있는 분들은 어떤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야말로 시시콜콜히 다 알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교도소 내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교도소 측에서는 좋아하지 않는다.

영민이는 신문의 문화면이나 잡지에 나오는 바깥사회의 사진들을 보면 생소하고 낯설음을 느낀다고 한다. '신세대'라던가 'X세대'라는 말을 들을때 얼른 이미지가 확연히 떠오르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젊은이들의 투표를 하라는 어떤 사회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지 잘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하긴 영민이는 91년 경북대 총학생회장 시절로부터 94년 3월, 문민정부들어 수배해제되기까지 도피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94년 6월 '주사파' 국면에 또다시 구속되어 지금까지 2년간 복역 중이다. 소중한 젊은 시절의 6년째를 수배와 도피, 감옥생활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민이의 그러한 갑갑함이 감옥 안과 밖이라고 해서 뭐그리 다를 게 있을까. 오히려 나는 한 살 터울인 영민이와 편지나 대화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영민이는 스스로가 생각해보아도 많이 여유로워진 것 같다고 했다.

이 사회현실에서 얼마간 떨어져 있는 영민이의 위치가 안타깝긴 하지만, 그 속에서 갈고닦아 길러진 세상을 바라보는 차분한 눈은 그에게 자유가 주어졌을때 더 흔들림없이 깊고 바르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리라 믿는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제 그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시간이 되었다는 교도관의 재촉에 몇번이나 더 양해를 구하고 나니 이제는 다시 한번 더 부탁할 면목이 없다. 오늘의 교도관은 마음이 좋은 편이다. 삭막한 교도소이지만 기쁨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에서 맛보는 파스 함이랄까 그런 것도 느낄 때가 있다. 마지막 인사를 아쉽게 하고 돌아서 나온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영민이의 모습을 보며 급하게, 마치 무언가 빠뜨린 것이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불러본다. 그저 한번더 보고 싶어서이다. 서로 헤어지며 나누는 웃음의 뒤끝에는 언제나처럼 조금씩 아픔이 묻어나기도 한다.

다시 민원실로 온다. 무언가를 좀 사넣어주기 위해서이다. 영민이는 집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영치금은 쓸만큼 넉넉히 있으니 언제나 넘지말라고 한다. 사실 오늘날따라 내 경제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먹을 것도 자신이 계획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니 넘지말라는걸 무시하기로 한다. 그 안에서의 계획은 계획이고 멀리서 찾아온 내마음은 또 내마음이나까. 구매물품 목록을 보는데 한숨이 나온다. 도무지 넣어줄 것이 너무나 없다. 예전에는 있었던 훈제고기 종류도 없다. 안그래도 부실할 그곳의 식사인데 구매해서 먹는 단백질 공급도 못하게 하다니. 생소한 제품의 빵과 우유, 멀건 쥬스뿐이다. 감옥안의 인권은, 책상 앞에 앉은 해당관리들의 서류직업 절차에서 오는 약간의 번거로움만도 못한 셈이다.

면회를 기다릴 때의 기분과 끝나고 나서의 기분은 언제나 다르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지금의 발걸음은 몹시 아쉽고 허전하다. 터미널에 도착하니 4시가 다 되어간다. 다시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고 이번에는 주머니 속의 경제를 헤아릴 여지도 없이 가능한 빠른 시간으로 차표를 산다.

버스에 올라 앉으니 피곤이 물려온다. 오고가고 12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달렸더니 허리가 몹시 아프다. 몇번이나 오시려 버르는 엄마 생각이 문득 나면서, 디스크 환자인 엄마가 이 먼길을 오시기는 무리이니 밀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10시 20분, 드디어 서울이다. 늦은 밤인데도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빈다. 버스로 마찬가지로이다. 집앞에 내리니 12시가 가까워지려 한다. 괜히 마음도 바쁘고 걸음도 바쁘다. 아파트 현관에 도착하여 한숨 돌리며 하늘을 바라본다. 순천에서 보이던 하얀 낫달이 여기까지 나를 따라와 환한 보름달로 빛나고 있다. 웬지 마음이 파스해진다. 영민이가 있는 그곳에도 지금은 달빛이 가득하겠지.

문 한 영 선 생 님 을 그 리 며

권
오
현

하안목련보다 더 깨끗하게 사셨고, 타는 진달래보다 더 뜨겁게
조국을 사랑하셨던 소암 문한영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수유리 산자락 그 목련과 진달래가 다투어 피고,
4월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진달래 능선에서 먼저간 원혼들을 기리면서
선생님 또한 뒤따라 잠드셨습니다. 외세와 분단과 독재에 맞서다 산화해간 영령들과
함께 못했음을 늘 마음 아파하시더니, 한평생을 자주와 통일, 해방만을 염원하며
살아오셨던 선생님이 그 뜻 채 이루어지기 전에 못 사람들 가슴에 큰 슬픔만을 남기고
말없이 가셨습니다.

아... 어찌된 일이었습니까.
선생님 홀연히 가시기 전 언제나처럼 동안의 해맑은 웃음속에
후원회 4월 산행을 꼭 함께 하겠다며 78세 노인으로는 누구도 잊지 못할
그 열정과 기백, 빛난 눈동자로 말씀하시더니 어찌 혼자 말없이 가셨습니까.
이 땅에서 외세의 그림자조차 쓸어내고 통일조국 이룩되는 날 덩실덩실 해방춤 추며
백두대간 곳곳을 안내하시려는 뜻 어찌하고 먼저 가셨습니까.

한줄 재가 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시던 날, 그 슬픔 딛고
우리들은 예정대로 양심수후원회 4월 산행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오셨다면
우이골에서 도선사를 지나 위문에서 쉬었다가 대동문을 거쳐 흐느려지게 피어난
진달래 능선을 밟고 4.19 영령들 앞에 참배하는 길로 이끌어주셨을 터이지만 우리들은
위문을 거치지 않고 대동문을 지나 짧은 산길로 선생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진달래 능선 어느 곳에서 선생님을 추모했습니다.

언제나 자상하고 인자하셨으며 잔잔한 웃음 지우지 않으셨던 선생님,
젊은이 보다 앞장서 굿은 일 말아하시던 모습,
산행 하루전에 미리 갈 곳, 쉴 곳, 샘터까지 알아보시던 현신성,
북한산.도봉산.수락산.불암산 어느 곳이건 여러 산길을 안내하셨던 선생님,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오늘의 역사적 임무와 민족의 과제를 역설하시던 모습, 그래서
우리 회원들에겐 더욱 선생님의 빈자리가 커보이고 슬픔과 아쉬움의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슬픔은 선생님의 민족민주운동에서 보이셨던 독특한 지도력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일제의 조선강점에 전 민족적 항거가 있었던 1919년, 원산 부두에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보통학교를 마치셨습니다. 1930년대 10대 노동자로
원산부두노동자 파업에 참가하셨고, 1944년엔 항일운동체인 '건국동맹' 원산지부에
참여하는 열성을 보이셨습니다. 일제패망 뒤 서울에서 여운형, 안재홍 중심의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셨고, 이승만의 독재가 노골화되던 때
조운제, 김시현, 이종률, 유시대, 박영석씨 등과 함께 '민족건양회'에 참여하며
책임간사로 활동하셨습니다.

1960년 4월 혁명 뒤에는 진보세력의 통일운동전선체인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협의회'에서 조직위원장으로 피선되어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로 투옥되어 혁명재판에서 1심 사형, 2심 무기, 3심 15년이 확정되었으나 1967년 12.25 특사로 나올 때까지 7년 옥고를 치루기도 하셨습니다. 군사정권시절, 온갖 박해속에서도 의연히 통일을 염원하시며 1989년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협의회' 재건에 함께 하였고 공동의장과 통제위원장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바다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안을 수 있는 여유와 옳지 않은 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높은 도덕성과 만인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품을 가지셨습니다. 배타적 주장이나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으셨고 조용히 듣고 말없이 실천하셨으며 당신의 행적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서슴없이 스스로를 비판 하며 옳은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소암 문한영 선생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葬'이 있던 날은 평소에 선생님과 뜻을 같이 했던 전국의 많은 동지들과 후배들, 그리고 민족민주운동단체 일꾼들과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소장학자들까지 모여 기둥 잃은 슬픔으로 오열하였습니다.

문한영 선생님!

선생님의 평소 말씀은 아직도 저희들 귀에 쟁쟁히 들리고 있습니다. 배부른 노예보다 허리띠 조이더라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인간존엄사상, 바로 그것은 민족존엄으로 이어지고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 의견이 갈리어 갈등을 겪는 것을 서로의 상처로 안타까와하시면서 민족분단의 아픔이 바로 통일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제민족이나 타 민족, 혹은 제도나 법으로 인간이 인간을 속박하는 것을 반대하여 해방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자애로운 모습이었지만 외세와 분열주의자에겐 한치의 틈도 주지않고 준엄하셨습니다.

소암선생님! 선생님은 아호(雅號)만큼이나 너무도 깨끗하게 그리고 바위처럼 자기신념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자기노동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선 밥 한톨이나 동전 한알도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셨으며 빈손으로 오셨다가 빈손으로 가셨습니다. 도봉산 아래 오랫동안 사시면서 도봉산 만장봉의 그 희고 깨끗함, 의연함을 호로 삼으며 산을 그렇게도 좋아하셨던 것은 풀한포기, 모래 한알까지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했던 조국사랑의 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그렇게도 좋아하시던 산에서 그것도 4월 영령들 곁에서 잠드셨습니다. 선생님의 덕목과 소박함과 헌신성, 애국의 길은 사람들 가슴마다에 남겨져 선생님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고이 잠드소서.

말 못하는 이들의 큰소리

손상희 (23세. 방송작가)

나는 올해 96년

2월 23일, 대학을 졸업한

여자다.

그리고 96년 4월 1일, 첫 출근을 했다.



예전엔 예술을 하겠다고 한강에서 퍼포먼스도 했고,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진실' 해야 한다며 가능한 집회마다 쫓아다니기도 했다.

지금은 케이블 방송국으로 매일 아침 9시 30분까지 출근하고 밤 10시 혹은 11시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곤 한다.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소중한 일이다.

무언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용감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때로는 잊지 않는다는 것 만으로도 최소한의 순결을 지킬 수 있다고 자위하기도 한다.

모든 사람이 '간디' 일수는 없고, 단지 우리는 우리의 '잊혀진 간디'들을 만나는 수 밖에... 라고

그렇게 그날 4월의 북한산을 갔다. 진달래 능선을 따라, '서울'이라는 내가 사는 도시 귀퉁이를 내려다 보며 이사람 저사람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그맣게 노래도 불렀으며 봄산을 걸었다. "밤이 너무 커지는 날에는 동산에 올라가 커다랗게 소리쳐 보아요. 야! 우리동네 보인다. 야! 내 손가락에 가려진다. 야! 비행기가 날아간다. 야! 함께 날아 볼까."

산등성 어디쯤에서 안학섭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어느새 어스름녘이었다. 그리고 오늘이 장례 일이라는, 먼저 이 능선을 걷다가 돌아가신 문한영 할아버지를 함께 추모했고 다들 비슷한 상념에 잠겨 4.19 묘역으로 향했다.

"용산고등학교 2학년, 서울역 집회중 머리에 실탄을 맞아 병원으로 이송도중 사망... 어머니... 아버지... 서울고등학교 3학년... 어머니... 아버지... 중앙대학교... 강원도... 어디서... 이렇게 사망... 국민 학교 부부같이 사망..."의 문구가 새겨진 비석들이 있었다. 그 작은 돌들이 야외 공원의 흥겨움 속에 조그만 정적들을 쌓고 있었다.

언젠가 말 못하는 이들이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를 본 적이 있다. 지하철의 번잡한 교차역에서 세명의 일행이 손짓과 표정으로 아주 크게 대화하고 있었다. 아무 소리도 없이... 그러나 무척 큰 소리로 들렸다면 믿을까?

땅속에 묻혀있는 이들은 옆으로 비껴났은 우리들의 '잊혀진 간디'들이었다. 나는 거기 서서 말 못하는 이들이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우리들은 그 큰 외침을 들으면서 문익환 목사님의

“통일의 집”으로 갔다. 언젠가 도심의 장례행렬을 쫓아가던 기억으로 한껏

경직되어 들어간 그 집은 마치 국민학교 교과서의 철이와 영화가 살것 같은, 작은

정원과 살구나무를 품고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현관을 들어서자 짙은 고동색의 마루

와 벽, 모양새 없이 투박한 장이 보였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직접 쓰신 글들과 친구들의 그림,

학생들이 보낸 편지들이 그 짙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들의 믿음을 걸어놓고 사셨나보다.

그리고 들어선 그분의 서재

우리는 줄을 서서 박물관이나 온 듯이 집을 둘러보고 있었지만, 그 서재의 편지들 앞에서는 모두 당황하
고 말았던것 같다. 감옥에서 박용길 장로님에게 보낸 그 글씨가 속칭 A4라고 부르는 종이 크기를 온통 흑
빛으로 채우고 있었다. 골골이 새겨진 믿음과 걱정, 사랑 같은 감정이... TV드라마 속의 20대 청년들의 사
랑에 익숙한 우리에게 어쩌나 절절하게 파고 들었던지 생각지도 않던 갑작스런 공격에 누구(?)는 패배의 눈
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살고 싶었다. 아니 그분들을 이렇게 만난 것 만으로도 너무나 다행이었다. 그저 사람과 사람사이의
아름다운 관계가 세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마저 불러오고 만것이다. 별다른 얘기도 없었다. 단지 검은색
두꺼운 면장철 가득 채워진 그 글씨 속에 그분들이 함께하신 시간들, 그분들이 가꾼 가족과 살구나무 목련
나무 같은 것들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막 시작하는 내 생활에는 마치 '소중한 것은 이거'라고 애
기하는 '어린왕자' 속 여우의 속삭임 같이만 느껴졌다.

그래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이이었을까?

방송작가가 되겠다고 이 방송국에 출근을 시작했을때 난 이렇게 생각했었다. '나의 세상에 대한 반응
을 강요할 수있는 매체를 선택한 것이다'고, '나는 세상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이고, 보통 사
람의 특별한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나는 어쩌면 세상은 따뜻하다고 말할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헛된 꿈의 잡문이지만 그럴듯 하게 월급을 타게 됐으
니 다행이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생각없이 한달이 지나가 버리고 없었다.
한번은 같이 일하는 여자에게 소리도 질렀고 사람들과 누군가의 흉을 열렬히 보기도
한다. 식당에서 급식을 먹고 어김없이 화장실에서 웅기증기 이를 뒀었다. 때론 입
술도 다시 바르고 얼굴의 지방도 찍곤했다. 그리고 비가오면 친구를 불러내
어 술도 마셨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잘났다고 하고 어
떤 사람은 세상이 잘못되어 자신이 못나 보이는 것 뿐이라고 했다.

그저 봄에 간 산행이 건강에 좋았을 뿐이라 말할 수
있을까?

아직 끝나지 않은 산행의 기록을 유보해
본다.

▼ 대동문에서 봄햇살을 받으며 웅기증기 모여 앉아 찰칵.



김성만(연세대졸, 구미유학생 사건, 1985년 구속,
사형에서 무기형으로 감형(1988, 12)
현재 전주교도소에 복역중)



안녕하십니까?

면회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로운 징역을 살면서 반가운 것이 편지와 면회인데 선생님께서 가끔 찾아주시니 참으로 반갑고 위로가 됩니다.

저의 징역이 워낙 길어지니까 저의 어머님께서도 많이 지치시겠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더욱 참고 기다릴 수 밖에 없지요.

저 역시 나이가 40이 넘어가는데도 단지 독방안에서 11년째 갇혀만 있으려니 마음이 고단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사형수 시절을 회상하면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이 확정되고 오직 죽음의 길만 남았으니 마음 아파하시는 부모님께 죄송할지라도 어찌할 도리를 모르겠고 저의 뜻과 미래가 완전히 없어졌으니 '이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름에 눈이 한번 오는 식으로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깨진 그릇이 안깨진 그릇으로 다시 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심정이었으나 현실은 막막할 뿐이고 그나마 오늘 집행당할지 내일 집행당할지 모르는 형편이었지요. 해결 할래야 해결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지 참고 견디면 되잖아요. 어느 정도의 시일을 참고 견디면 해결되는 문제이지요. 사형수 시절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생각한다면 지금 참고 견디면 모두 해결되는 이 괴로움은 좀 넉넉한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방 정리와 청소를 오전 내내 하였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가지런히 정돈해 놓으니 징역 속 방인데도 단정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운동을 하는 마당에는 개나리 한 그루가 있는데 노란색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사회에는 여러가지 꽃이 만발해 있겠지요? 마당에 있는 개나리 한 그루나마 반갑고 즐겁습니다.

따뜻한 손을 맞잡고 이 어두움과 마음의 슬픔을 같이 견디어내주는 분들이 계시니 바로 양심수를 후원하여 주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마저 안계시다면 이 허허로운 벌판에서 위로는 하늘이고 아래로는 땅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허허로운 벌판에서 모닥불이라도 피워 놓고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같이 모여 앉으니 이 인내의 세월을 견디기가 쉽고 격려가 됩니다. 모닥불을 치워 버리고 온 대지 위에 가득히 비쳐오는 햇살을 받는 날, 슬픔과 고통의 길고 긴 세월을 교도소 안과 밖에서 같이 견디어냈던 사람들끼리 아무라도 붙잡고 껴안고 서러움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릴 그날이 올때까지 우리 이제 또 힘을 냅시다. 여러 어머님들의 건강을 빌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6. 4. 김성만 드림

아들처럼, 딸처럼

두 사람의 대화는 식탁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모양이다. 식탁이 놓인 벽의 한 면에는 여러 가지 메모들이 빼곡히 붙어있다. 중학교 국사 선생님이 서미라 회원(36세)의 수업시간표와 반 아이들의 연락처,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봉천동-낙성대 방문일정'이라 쓰인 한 페이지 짜리 시간표이다. 4월 13일의 날짜 위에는 두 사람 중 누군가가 주의깊게 표시를 해두었다. 바로 이들이 낙성대 만남의 집으로 선생님들을 방문하러 가는 날이다.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것은, 이 집안에서는 이제 생활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거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지리산에서 시작된 인연

수업을 마친 후 놀이방에 맡겨둔 딸 서현(5세)이를 데려오고 한편으로는 식사준비로 바쁜 서미라 회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붙여본다. 그러나 "이야기할게 있어야지요, 우리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회원들과 함께 하는 것인데..." 하며 한쪽 보조개가 패이는 웃음만을 자꾸 던져줄 뿐이다.

아, 그러나 어찌하랴. 이번 호부터 '회원들의 살맛나는 희망이야기'를 재미나게 실어보자는게 편집회의의 결과였는데. 그래, 그런다고 물러설 내가 아니다.

"지리산 아래 살았지만 지리산을 잘 몰랐어요. <태백산맥>을 읽고나서 지리산에 꼭 가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소설 <태백산맥>의 완간을 기념하는 역사기행이 90년 5월, 작가 조정래 씨와 여러 문인들이 함께 하여 지리산에서 이루어졌다.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였고 참가자들은 몇 조로 나뉘어 움직이게 되었는데 그때 김호현(36세), 서미라 회원은 같은 '6조'였다. 여기에 양심수후원회장 권오현 선생님, 그리고 이제는 다들 오랜 회원인 '알만한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호홉이 잘 맞아 재미있게 보낸 조가 바로 이 6조였다. 산을 내려오고 나서도 그때의 좋았던 기억들은 가시지 않아 '6조'는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 바로 역사문화기행모임 '음시롱감시롱'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소중한 인연은 계속되어 그 다음해 김호현, 서미라 회원은 결혼을 하였고 귀여운 딸 서현이도 얻게 되었다.

전라도 사투리로 '오면서가면서'라는 뜻을 담고있는 이 모임이 역사문화기행모임인지 양심수후원회 모임인지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다. 역사적 사실이 남아있는 유적들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 그곳에서 역사를 만나고 배우고 오는 사람들이 바로 '음시롱감시롱' 회원들이다. 그들이 '살아있는 이땅의 역사'인 출소장기수 선생님들을 만나뵙고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수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김호현 회원은 말한다. "뭔가 의미있는 곳으로의 여행이 좋아 만난 사람들입니다. 장기수선생님들을 만나고 양심수후원회 활동을 함께 하는 것에도 자연스럽게 공감의 형성되었어요.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 여겼지요."

서현이는 두 살이 채 되기도 전부터 엄마 아빠를 따라 여러 곳으로 기행을 다녔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기수 할아버지로부터 사랑과 귀여움을 듬뿍 받고 있기도 하다.

선생님들의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후원자

늦겠다던 김호현 회원이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였다. 결결한 그의 목소리로 집안은 금새 활기를 띄기 시작한다. 혼자서 얹전히 동화책을 읽고 있던 서현이도 아빠가 들어오자 아빠 다리에 매달려 정신이 없다.

‘옴시롱감시롱’ 및 이들 부부의 출소장기수 지원활동은 이종환 선생님과 결연으로 1993년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종환 선생님은 1951년에 ‘국방경비법’으로 체포되어 43년간 복역하고 1993년 3월 6일 출소하셨다. 무의탁자로 분류된 선생님은 1993년 가을, 서울로 오시기 전까지 충남 아산의 요양원에 계셔야만 했다. 감옥 못지 않게 자유가 제한된 요양원으로 옴시롱감시롱 회원들의 면회길은 이어졌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김호현 회원은 봉천동, 낙성대의 모든 선생님들의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후원자이기도 하다. 선생님들은 몸이 아프시거나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나 먼저 ‘김호현 선생’을 찾으신다. 선생님의 속옷과 옷가지, 안경 바꿀 것까지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는 김호현 회원을 보면 정말 믿음직스럽고 인정많은 큰아들 같다. 아마 자식들을 남겨두고 온 선생님들에게는 김호현, 서미라 회원이 바로 그 자식 또래일 것이고 서현이는 귀여운 손녀뻘이 될 것이다.

“지난달 봉천동에 갔을때 냉장고가 비어있는게 마음이 아프고 몹시 속상했어요. 그 고생하고 나오셨어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하는데... 찾아뵙는 우리도 선생님들의 구체적인 생활에 대해 자기 생활을

챙기듯이 해야 할텐데...” 그래서 밀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담아 두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는 서미라 회원.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서 김호현 회원이 드는 고민이자 바램은, 선생님들을 가까이 모시고 아들 며느리와 손자가 있는 가정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 가장 가까이에서 선생님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진솔한 문제의식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가지로 간단하거나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도 후원회가 이만큼 성장해 왔듯이, 김호현 씨의 고민도 함께 나누어 할 사람들이 더욱 많이 생길 것이라 여긴다. ‘아버지처럼’이라 이야기하는 김호현 씨의 말이 무척 따스하고 정감있게 들려온다.

현재 김호현 회원은 핸드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017 신세기 통신’에 근무하고 있다. (참, 알아두시라. 이 핸드폰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하에서도 통화가 되는 ‘힘 좋은’ 것이라)

사람 좋은 김호현 회원도 업무에 관해서 만큼은 회사의 부하직원들에게 ‘무섭고 엄격한 과장님’으로 통한다. 회사 생활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니 그에게는 무척 단호하고 철저한 면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보니 오늘따라 김호현 회원이 조금 이상하다. 후원회 행사때(특히 뒷풀이) 보았던 “차디찬 그라스에 빨간 립스틱...”을 부드러운 몸놀림을 해가며 불러재기던 모습이며 술좌석에서 좌중을 압도하는 분위기하고는 영 딴판이다. 너무 우리를 웃겨버



▲ 엄마, 아빠의 이름 한자 한자를 따 온 서현이.

려 행여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면 어쩌나 지레 걱정까지 싸매고 갔는데 오늘은 당황스러울(?) 만큼 진지하고 말수도 적다. (술이 적어서인가?)

다시 선생님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드느냐고 김호현 회원에게 물어보았다.

“우리는 그동안 이데올로기에 짓눌려 우리 역사를 잊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보다도 그 이전에 사람을 먼저 보아야 하고 사람으로서 정이나 도리를 먼저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들이 오히려 제게 그러한 정을 늘 주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엉뚱하다시피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잘 찾아내는 것을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진정어린 관심을 기울일때는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두그릇씩 비운 밥 때문에 배불러 드러눕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던 나에게 양상치에 빨간 방울토마토를 곁들인 샐러드를 또 권하던 서미라 회원은 “선생님들을 만나 뵈고 오면 좀 쓸쓸한 생각이 들어요. 하긴 선생님들의 그러한 삶도 다 이 시대와 역사가 만들었고, 또 당신들께서 기꺼이 감수한 삶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아요.” 분단 50년의 이 역사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채 계속 이어진다면 서미라 회원 못지 않게 우리의 마음도 또한 무거울 것이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길래

김호현 회원은 이번 제8차 양심수후원회 총회에서 “고난받는 양심수와 오래간혀 있다 출소한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후원하시고 특히 회원간의 화합을 위해 힘써 주신 것에 깊이 감사”하는 뜻에서 모범회원상을 받았다. 그 날 상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축스러워 어쩔줄

몰라 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한 게 무엇이길래’의 말만 계속 한다. 서미라 회원이 차려주는 따뜻한 저녁식사는 대접받았지만 (참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 고들빼기 김치며, 된장국이며 남도의 맛이 배어난다)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듣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이야기가 마무리되어갈 무렵, 자연스럽게 5월달부터 해야할 이런저런 일들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진지해지기 시작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 모임을 좀더 활성화할 방안, 다른 회원들 이야기, 선생님들의 근황 등 이야기는 그칠 줄을 모른다.

어느새 ‘회원탐방’의 만남이 아니라 마치 후원회사업과 회원활동에 관한 토론 모임같다. 좀 전에 자신들의 그간 활동에 관한 일들을 들려줄 때는 것처럼 어색해하고 자주 말끝을 생략하더니, 지금은 전혀 판판의 모습이다.

식탁 위에 붙은 선생님들 방문 일정표를 다시 본다. 그리고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는 김호현 씨, 서미라 씨의 얼굴을 바라본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할일에 관한 의논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선생님들의 고난에 가득찬 삶을 함께 나누고 ‘아들처럼, 딸처럼’ 함께 사는 삶은 이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활의 한부분이다. 역사속으로 기행은 선생님들과의 만남에서 찾아지고, 그것은 또 역사와 함께 이어져가고 있는 오늘을 힘차게 살아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리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의 방향을 돌리거나 마무리를 굳이 서두르고 싶지 않다. 조용히 노트를 덮고 나도 이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작은 방안은 역사를 보듬어 안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어나갈 활기로 넘쳐나고 있었다.

제네바에서 열린 제52차 UN 인권위원회

김수지 (민가협 국제연대 간사)



‘Geneva’는 어디고 UN 인권위원회는 무엇이나? 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 볼 것이다. Geneva는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장소로 유명한 곳이다. UN 인권위원회는 인권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제기구 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다가오는 국제인권 보호 체도를 연구하고 이용하는 것은 인권보호와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 UN 인권위원회는 바로 이와같은 국제인권보호체도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 3월 18일부터 열린 UN 인권위원회 제 52차 회의를 최초로 한국인권단체들(민가협, 참여연대, 민변, 인권협)이 집단적으로 참석한 것은 한국의 인권개선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엔, 유엔인권위원회란?

UN에는 국제인권조약과 UN 헌장에 따라 만들어진 여러 인권

기구가 있다. 인권위원회는 헌장에 기초한 주요 인권기구에 포함된다. 조약에 기초한 인권기구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CESCR), 고문방지위원회(CAT), 아동권리위원회(CRC),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있다. 이들 인권기구와는 별도로 국제노동사무국(ILO)과 난민고등판무관(UHCR)을 포함한 UN의 몇몇 전문기관들도 중요한 인권보호 기능을 갖는다.

인권위원회는 매년 6주동안(3월 쯤) 회의를 연다. 인권위원회가 위임받은 사항은 현존하는 국제인권기준 모니터, 새로운 국제인권기준 제시, 인권침해 조사, 인권관련 새 프로그램과 정책 제안 등 인권 관련 국가활동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에게 자문 서비스 및 전문기술 서비스 제공 등이다. 인권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와의 동의를 얻어 특정 인권문제와 관련해 상황진전을 감시하는 몇가지

절차를 두고있는데, 이는 나라별 특별보고관,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주제별 특별보고관 등이다.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국보법 폐지권고

UN 인권위원회 회의 의제가 워낙 다양해서 참여하는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각 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를 준비함으로써 회의 준비를 했다. 참여연대는 발전권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다루면서 민주노동과 함께 준비한 노동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민변은 올해 11월에 UN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한국정부가 제출하게 될 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반박보고서를 제출할 준비를 했다(고문방지위원회 심의기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인권협은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민가협은 고대순씨 사건을 비롯해 한국인권활동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작년 여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Abid Hussain 씨가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그의 보고는 올해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국가보안법과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폐지를 무엇보다도 강력히 권고하였고 특히 한국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문제로 국가보안법을 지목했다.

아비드 후세인씨의 한국 방문은 UN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으로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실린 결론과

권고안이 UN에서 처음으로 강력히 주장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인권운동에 뜻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국제인권단체로서는 International Pen의 '구금된 작가를 위한 위원회'와 R.F.Kennedy 인권센타가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발언을 하였다.

작년말 북경에서 열렸던 UN 세계여성대회를 통해 여성문제가 특히 주목된 가운데 이번 UN 인권위원회에서 고애순씨 사건은 여성폭행문제로 제기되었다. 고문에 대항하는 국제단체인 SOS-Torture는 고애순씨 사건에 대해 '여성에 대한 비인간적인 고문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고 한국의 경우 고애순씨가 국보법에 의한 구금 중 적절한 의료조치도 받지 못한 채 사산하게 되었다'고 발언을 했다. 또한 고애순씨 사건 보고서는 UN 인권위원회 산하의 부서인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방지위원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위원회 등 4개의 기관 및 보고관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몇 년전부터 제기되오던 정신대문제관련 조항이 통과되었는데, 한국내의 여성단체는 물론 아시아의 여러 인권 및 여성단체들의 공이 컸다.

국경을 넘어선 공동의 노력

이번 회의 중 가장 뜻 깊었던 활동 중 하나는 세계 각국에서 인권침해와 맞서 싸우는 민간단체들과 연대를 맺는 일이었다. 특히 인권침해와 민중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개발독재' 모델을 다른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답습하려고 하는 지금 아태지역의 인권개선을 위한 민간단체들간의 공동노력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연대활동은 서로 얼굴을 익히는 아주 단순한 일에서부터 공동발언, 공동기자회견과 같은 전문적인 국제연대사업도 포함된다. 회의 기간 중 한국, 티베트, 중국, 필리핀, 베트남, 동티모르 등 여러 아태 지역의 민간단체들이 모여 서로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인권운동의 전망을 토론하기도 하였다. 이 모임에 참가하면서 민간단체들이 통일된 목소리를 낼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더 밀접하고 체계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위원회 회의장

이와같은 아태지역 민간인권단체들의 단결된 활동은 결국 정부측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되었다. 놀라웠던 것은 국내와는 달리 국제무대에서는 민간단체들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받아들여졌으며 대체적으로 정부대표들도 창피를 모면하기 위해서인지 협상을 유도하려는 분위기였다.

이번 회의에서 만났던 어느 활

동가도 얘기했듯이 이런 회의의 진정한 중요성은 국가들도 아니고, 정부대표들도 아니고 껌대기뿐인 단체들도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활동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만나며 작은 마을들이 모여 국경을 넘어서 세계의 마을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회의를 참석하는 동안 가장 안타깝고 아쉬웠던 점은 UN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의사 표현의 자유권을 비롯한 인권 공방에 대해 국내 언론들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새삼스레 느꼈던 것은 국제활동은 국내활동이 뒷받침되어야 더욱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선은 UN의 인권기구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고 동시에 세계 각국의 민간단체들과 연대를 끊임없이 맺어나가야 할 것이다. UN이라는 기구가 정부대표들의 모임으로써 물론 정치적이지 않을 수 없고 인권이라는 거대한 주제 아래 보편성을 주장하며 결국 인권이 아닌 경제적 문제와 같은 전혀 무관한 주제의 토론과 싸움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모순과 위선 투성이의 정치적 게임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인권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세력은 결국 각 국가의 민간인권단체들로서 우리는 이 중요한 자리를 꺾듯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연구와 준비, 체계적으로 좀더 성숙하게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 1 - 민가협 민주가족의 날이 열렸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님이 함께해서 '양심수를 어떻게 석방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 2 - 경희의료원에 입원중인 황영태 선생님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 3 - 고 박선영 열사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 4 - 노수석 군 영결식이 연세대에서 열렸으나 "정부최고 책임자의 사과와 진상규명 및 학교당국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시신은 연세대 백양로에 안치되었고 학생들은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 범청학련 남측대표로 북한을 방문한 이유로 구속된 정민주 이해정 항소심 기금 마련 하루주점이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 서울지법 형사9단독은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박씨를 석방했습니다.
- 서울지검 형사 4부는 강민조(고 강경태 열사 아버지)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두환의 아들 재국, 재만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 5 - 양심수후원회 제 7차년도 사업 및 재정감사(96년 1, 2, 3월)를 받았습니다.
- 6 - 경원대 진철원 군이 학원자주화를 요구하며 분신사망하였습니다.
- 7 - 성신여대 권희정 양이 교육재정 확보와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단식을 벌이다 심근경색증으로 운명했습니다.
- 8 - 고 노수석 군의 아버지 노봉구 씨는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차장, 기동대장, 시위진압 지휘 중대장, 시위진압 전투경찰 및 사복체포조 등을 상해치사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에 고소했습니다.
- 고 이수병 열사 20주기 추도식이 경희대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 9 - 양심수후원회 제8차 총회준비위원회 두번째 모임이 열려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 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노동법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 10 - 고 노수석 군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연세대에서 영결식을 치루고 신촌로타리, 시청앞을 지나 종묘공원에서 노제를 지낸 다음 광주로 떠났습니다. 노군은 광주 망월동 오월열사 묘역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 11 -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 12 - 『후원회소식』 54호를 발송했습니다.
- 13 - '애국학생 고 노수석 열사 추모 및 김영삼 정권 살인폭력 진압 대책위원회'는 연세대에서 제3차 국민대회를 열고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고 노수석 군 사인이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심장사라고 최종 부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16 - 성균관대학교 울전교정에서 이 학교 황혜인(물리학과 95학번)씨가 "노동해방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하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 사망하였습니다.
- 클린턴 방한을 맞아 한미행정협정의 전면개정과 광주학살 및 미군범죄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가 전국각지에서 열렸습니다.

- 권양섭 선생님 댁으로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18

-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렸습니다.
- 고애순(전 광주전남연합 자통부장)씨의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사월혁명연구소(소장 황건)는 사월혁명 36주년을 맞아 연세대 장기원 기념관에서 기념토론회와 사월혁명 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4월혁명상은 단병호(민주금속 연맹 위원장 · 의정부교도소 수감중)씨가 수상했습니다.

19

- 사월혁명 36주년을 맞아 여수수산대 오영권 군이 "김영삼 타도, 미제축출, 조국통일만세"라는 글을 남기고 분신사망하였습니다.
- 서울고법은 임의동행으로 붙잡아간 피의자를 48시간안에 풀어주었다해도 수갑을 채워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했다면 불법구금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베트남 전쟁 참전 고엽제 피해자 1백37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0

- 양심수후원회 제8차 정기총회가 홍사단 강당에서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21

- 4월 산행이 있었습니다. 34명이 함께하여 우이동 종점에서 도선사, 대동문을 거쳐 진달래능선을 타고 4.19 국립묘지로 내려왔습니다. 묘지를 참배하고 '통일의 집' (박용길 장로님 댁)을 방문하였습니다.

24

- 홍성교도소를 방문해 홍성우(제주대, 국가보안법 위반)씨를 면회했습니다.
- 고 이덕인 씨 장례식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지 149일만에 열려 마석모란공원에 묻혔습니다.

25

- 범민련 사건으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영옥 선생님(양심수후원회 전 운영위원)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렸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박충렬 씨의 사례발표가 있었고 꽃다지가 좋은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 경원대생 고 장현구 씨의 장례가 134일만에 치뤄졌습니다.

26

- 고 강경대 열사 5주기 추모제가 모교인 명지대에서 열렸습니다.

28

- 고 김세진 이세호 열사 제 10주기 추모제가 고인들의 모교인 서울대에서 열렸습니다.

29

- 낙성대 만남의 집과 무연고 출소장기수 분에게 4월 생활지원금을 전해주었습니다.

30

- 장가협과 미국 수도장로교회 자녀돕기(서경원 원, 김태룡 님 자녀) 지원금을 드렸습니다.
- 5년 이상 수감중인 장기복역 양심수 96명에게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5월 산행

언제 → 1996. 5. 19(일) 10시

어디로 → 관악산

모이는 곳 →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가)매포소 앞

준비할 것 → 도시락, 회비 3,000원

알립니다

회원소식

- 양심수후원회 제7차년도 사업중 출소장기수 중 합검진을 해주신 김지영 내과의원, 사당의원, 성동주민의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양심수후원회 회원이시며 민족민주운동의 원로이신 문한영 선생님께서 4월 18일, 4.19 기념탑 참배를 마친 뒤 북한산 진달래 능선을 오르다 심장마비로 운명하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 김수룡 선생님 모친께서 천수를 다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김선생님께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일어번역사 정순택 선생님이 일거리(일어번역)를 찾고 계십니다. 문의는 사무실로.
- 김도한 선생님께서 치료를 마치고 지난 4월 2일, 다시 대성리 '해돋이 공동체'로 가셨습니다. 더욱 건강하십시오.
-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던 황영태 선생님이 많이 좋아지셔서 퇴원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 만성 C형 간염, 저알부민증, 만성위염 등으로 병보석 출감하여 사당의원에 입원하셨던 주명순 선생님이 퇴원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 37년 복역하고 출소한 이경구 선생님(64세, 월간 '말' 영입부 근무)께서 6월 9일, 중구 구청 구민회관에서

10시 50분에 혼례를 올립니다. 축하드립니다.

- 민족무예 24반 복원을 위해 애쓰시는 임동규 선생님이 각고의 노력으로 『무예도보통지』실연, 해제 완역본(학인사 간)을 출판해 지난 4월 20일, 동국대에서 출판기념모임을 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문의는 민족도장 경당 운영위원회(062-943-6130).
- 한선경 회원이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 고척동 만남의 집 양요순(마리베안네) 수녀님(4. 5), 고난받는 감리교회 목사님들(4. 13), 감리교 동대문 교회(장기천 감독님), 윤정미 전도사님을 비롯한 성도들(4. 28)께서 낙성대 만남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성림 회원이 광명시(하안동 상업지구 뉴서울 레포츠 센타 상가 1층)에 어린이 교육전문 비디오 대여 판매점 "아이참"(895-5667)을 열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김리영 (노원구 상계3동) 김근희 (경기도 광주군)
임미영 (경기도 부천시) 손상희 (서초구 반포동)
박숙현 (영등포구 당산동) 김종범 (경기도 평택시)

4월에 구속된 양심수

집회 및 시위관련

김창수 박준형(경남대) - 4. 8
정석권(인하대) - 4. 13
박현수 우상진 신재남(충주산업대) - 4. 27
이종진(충북대) 조기영(청주교대) - 4. 26
박영생(전노련) - 4. 20
김용국 김현수 노병남(영광 해추방위원회) - 4. 21

국가보안법 위반

강정희(전남대) - 4. 14
: 94년 전남대 분향소 사건 관련
이재익(조선대) - 4. 14 : 94년 한총련 출범식
당시 평양 시가지 모형을 만든 혐의 등

박철홍 서승중(전남대) - 4. 19
: 남총련 간부
정성철 윤현정(태광산업 노동조합) - 4. 19
: 단체협상을 앞두고 이적표현을 소지 혐의로 구속
성세경(사민청) - 4. 20
나호영(부산대) - 4. 20
: 부산대 활동가 조직 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
그러나 지난해 경찰이 이적단체로 발표한 활동가 조직은 1심 판결에서 이적단체혐의가 빠지고 구속자들은 단순 이적표현을 소지죄로 집행유예로 풀려남.
이정훈(경남대) - 4. 20
: 북한대학과 서신교류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정현중(원광대) - 4. 23 : '단기동맹'
심호식 김성훈(서울대 졸) 오상훈(고려대 졸) - 4. 23
: '해국동맹' 사건. 92년 본 사건발생 당시에는 아무런 일도 없다가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4년이 지난 지금 마구잡이로 연행, 구속.
한국노동청년연대 - 4. 24
이기주(의정) 전상훈(부의장) 한영직(대전지부 지부장) 정미은(충무국장) 오치근(대외협력위원장) 인미숙(서부지부 지부장) 박선미(전집국장) 정희진(북부 사무장) 강운숙 유정화 김영민(부산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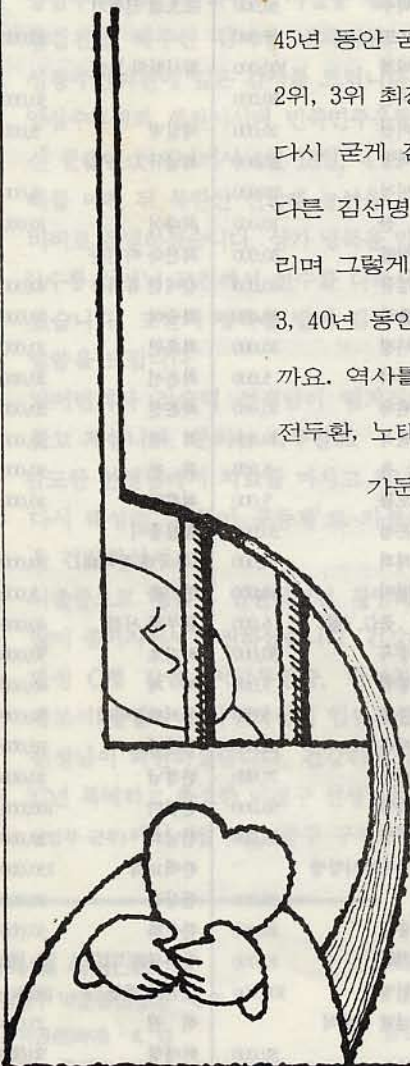
양심수후원회원을 찾습니다

4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감옥문을 뒤로하고 마침내 세계 1위, 2위, 3위 최장기수가 세상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감옥문은 다시 굳게 잠기고 저 십오척 담장안에는 세계최장기수인 '또 다른 김선명'들과 400여 양심수가 우리의 무디어진 양심을 울리며 그렇게 갇혀있습니다.

3, 40년 동안 녹슬어 있는 빗장은 우리를 양심의 녹슬을 아날까요.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전두환, 노태우를 기어이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둔 양심수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은 잘못된 역사에 의해 지금껏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양심수가 옥문을 활짝 열고 사람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일, 이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양심수 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3, 40년 넘도록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있던 장기수들에게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합니다.
- 20~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무연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머물 곳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기타 자신의 처지에 맞는 여러 형태의 후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실 송금구좌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택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양심수후원)
농협 053-01-112692 (권오현양심수)
지로번호 7619407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종로구 창신 2동 592-7
Tel. 763-2606 Fax. 745-5604